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3년 2월

선교편지 제 52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중에 '바글라'라는 생소한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식당이나 상점, 또는 이발소와 같이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도 '바글라'와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여성처럼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말과 행동을 하는 '여장(女裝) 남자'들입니다. 여자들보다도 더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바글라'가 많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성별을 라라끼(남자), 바바이(여자), 그리고 '바글라'로 분류한다고 할 정도로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바글라' 미인 선발 대회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학교에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바글라'로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서가 매우 놀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오랜 식민 역사로부터 낯서 및 생활 습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사생활이 매우,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학원 사역을 통하여 마띠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깊이 알아가는 중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즉, 어린 학생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가정 문제로 인하여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마치 3류 주간지이나 나을 법한 복잡한 가정 문제를 거의 모두들 안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어머니가 떠나고, 새 아버지가 들어 오고, 새 어머니가 들어 오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떠나서 친척집에 머물고, 친형제들도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져 살고 있고, 부모가 다른 형제들이 모여 한 식구가 되고.....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 29:18)

마띠 고등학교에서 저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학생들 중에 공부를 가장 잘하고 성실한 A라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태워주는 오토바이를 타고 매주 토요일 마다 저희 모임에 출석을 하는 수줍음이 많지만 항상 웃는 밝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 하고 말 수가 급격히 줄더니, 마침내 토요일 모임에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A학생의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니, 복잡한 가정 문제로 인하여 학교 출석도 불규칙해 지고,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오토바이 운전사로서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는 아버지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새로운 부인으로 선포(?)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A 학생은 줄지에 한 집에서 두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방 한칸의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움막을 만들어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별도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대한 갈등으로 어린 학생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B 여학생의 가정도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아버지가 어디론가 떠나고 어머니 혼자서 자식들을 데리고 살다가, 최근에 자식들이 있는 새 아버지를 맞이해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아버지가 B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하려고 해서 집을 뛰쳐 나와 학교에 도움을 청한 상태입니다.

법적인 해결책은 물론이고, 친 어머니의 적극적인 노력도 없어서, B 여학생은 집에도 가지 못하고 밖을 걸돌고 있습니다. B 학생에게 어머니의 의미는 무엇인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C 여학생은 최근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가까운 친척의 아이를 임신 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15살의 여동생도 같이 임신을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C 학생을 찾아 가서 고등학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학업을 계속하라고 설득했으나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깊은 상처로 인하여 세상을 다 살아 본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헤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그저 평범한 일상처럼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들어 주기에도 벅찬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고는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엄울한 세대입니다. 연약한 자녀들이 정말 혼탁한 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적셔 주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 1:4)

 그동안 학원 사역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이곳에 위치한 여러 현지 고등학교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재학생이 500여명도 안되는 소규모 학교로부터 필리핀에서 두번째로 학생수가 많은 10,000여명 규모의 학교도 방문할 수 있었고, 학교가 설립된지 5년도 안되는 고등학교로부터 5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의 학교들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고등 학교들을 방문하여 학교 시설들을 돌아 보고,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재학생들도 만나서 학교 생활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원 사역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지의 학교들을 방문하며 느끼는 것은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또한 학교 설립 역사에 상관없이 학원 선교의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 사역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롬 10:14)

그런데 이렇게 여러 현지 고등학교들을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들로부터 다양하게 학교 소개를 받는 중에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소개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 거리라 생각되는) 고등 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 '대학 진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졸업생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대학에 진학을 했는지, 또는 소위 필리핀 명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몇명이 되는지 등의 일반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제가 너무 궁금해서 대학 진학율에 대하여 문의를 하면, 그제서야 교장 선생님은 담당 선생님을 불러서 확인을 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였습니다. 비교적 열악한 지역에 있는 이들 학교의 최대 관심사는 대학진학이 아니라, 입학생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 했는가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이곳 고등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대학 진학'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나이를 따라서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로,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 아닙니다. 20살이나 된 청년이 12살된 어린 학생들과 같이 뒤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집안 일을 돕던

언니가 동생보다 뒤늦게 학교로 들어와서 저학년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어제까지 같이 공부하던 학생이 갑자기 학교를 중단하고 농사 일을 돕거나 어린 나이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이곳에서는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띠 고등학교는 3월 19일 졸업식을 한달여 정도 남겨 놓고,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졸업 준비도 바쁘지만, 그전과 달리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하여 입학 시험 준비 및 서류 준비에 지금까지 별로 해 보지 못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지금까지 마띠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몇명이 대학에 진학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무관심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금년에는 많은 수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마띠 고등 학교 토요 성경 모임에 속한 40여명의 학생 중에서 24명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대학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후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학금 대상자 모두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겨우 마치고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의 앞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저들의 삶이 마치 흥칙한 애벌레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것 같은 축복의 길로 들어섰다고 해도 큰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단순히 학비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대학 입학 후에도 정기적으로 매주 함께 모여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함께 이루어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학 하게될 대학에서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대학교 복음화에도 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복음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 71:5)

그동안 이 지역에 있는 스파마스트 (SPAMAST) 대학에 학원 선교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마침내 스파마스트 대학의 총장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파마스트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이어서 장학금 지급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학생 개인에게 학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대학교에 장학 기금을 조성해서 해당 학생에게 학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학생들의 형편을 일일히 살펴야 하는 저의 수고를 덜 수 있고, 절차가 투명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였습니다. 대학 총장의 풍성한 환대 가운데 장학금 지급을 위한 모든 절차를 계획 이상으로 잘 마치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입생들이 새학기를 시작하는 때부터 (대학교의 표현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학교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허락도 받았습니다. 마침내 스파마스트 대학교에도 학원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 75:1)**

그런데 앞으로 기도하면서 지나야 할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24명 모두가 성적이 매우 우수해서 별다른 절차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대학 입학에 위한 최종 시험을 치루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평안해서, 모두들 넉넉히 합격할 것 같습니다. 이제 4년간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만한 일꾼으로 만드는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모든 학업을 잘 마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서, 이 지역이 복음화 되는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되는 즐거운 상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 장학 사역을 통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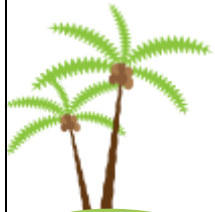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소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 49:22)

기도 요청

1. 디고스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2. 마띠 고등학교 장학 프로그램을 위하여
3. 마띠 고등학교 토요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위하여
4. 스파마스트 대학생 선교를 위하여
5. 현지 언어 훈련을 위하여
6.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7.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8.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9.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10.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